

**전일동향**

전일대비 2.90원 하락한 1,334.70원에 마감

21일 환율은 전일대비 2.90원 하락한 1,334.70원에 마감했다.

이날 환율은 NDF 증가를 반영해 전 거래일 대비 3.60원 하락한 1,334.00원에 개장했다. 하락 출발한 환율은 위안화 약세 등 영향에 보합권까지 낙폭을 축소했다. 오후장에서 중국과 홍콩 증시 강세에 위안화도 강세로 돌아서자 환율은 1,332원 부근까지 하락폭을 키웠으나 장 후반 하락폭을 일부 반납하며 1,334.70원에 마감했다. 장중 변동 폭은 5.50원이었다.

한편, 이날 외환시장 마감시점의 엔-원 재정환율은 889.25원이다.

전일환율변동	구분	시가	고가	저가	종가(15:30)	평균환율 (매매기준율)
	달러	1334.00	1337.60	1332.10	1334.70	1335.00
엔화	891.86	892.37	887.37	888.57	-	
유로화	1446.02	1446.08	1439.76	1443.78	-	

F/X(달러-원) 스왑포인트	1M	3M	6M	12M
	보장환율(수출)	-0.48	-5.16	-12.52
결제환율(수입)	-0.26	-4.37	-10.94	-23.36

\* 해당월 최종영업일까지의 스왑포인트, 전일자 청약고객이 수취한 스왑포인트  
\* 당일 청약시 시장상황에 따라 변동하는 바, 자세한 사항은 환위험관리 지원센터(<https://www.ksure.or.kr/rh-fx/index.do>) 확인

**금일 전망**

실수급 위주의 관망세에...1,330원 초중반 중심 등락 전망

NDF에서 환율은 스왑포인트(-2.00원)를 고려하여 전 거래일 현물환 증가(1,334.70) 대비 1.20원 하락한 1,331.50원에서 최종호가 됐다.

금일 환율은 금통위 결과 등을 소화하며 관망세를 보일 것으로 예상된다. 1월 FOMC 의사록에 따르면 연준 위원들은 조기 금리인하에 따른 위험에 대해 동의했고, 금리 인하 등 정책 전환은 앞으로 지표를 확인하며 신중하게 결정해야 한다는 의견이 다수였다. 대체로 시장의 예상에 부합하게 나온 의사록에 채권 금리, 달러화에 미친 영향은 제한적이었다. 뉴욕증시가 일시적으로 낙폭을 확대했으나 저가매수가 유입되며 반등했다. 한편, 장 마감 후 엔비디아가 예상치를 웃도는 실적을 발표하자 역외 상승세를 보였고, 실적호조에 따른 수혜가 국내 증시에 이어질 경우 달러원 환율은 하방 압력을 받을 가능성이 유효해 보인다. 다만, 금일 오전 한국은행의 2월 금통위 회의가 예정되어있으며 환율은 금통위 결과 및 월말 네고 경계 등을 소화하며 실수급 위주의 관망세를 보일 것으로 보인다. 또한, 수입업체 결제수요 등은 하단을 지지할 것으로 예상된다.

금일 달러/원 예상 범위	1327.00 ~ 1336.50 원
---------------	---------------------

<b>체크포인트</b>	■ 전일 외국인 주식 매매 동향 : -652.06 억원
	■ 뉴욕 차액결제선물환율(NDF) : 전일 서울외환시장 현물환 대비 1.20원 ↓
	■ 美 다우지수 : 38612.24, +48.44p(+0.13%)
	■ 전일 현물환 거래량(종합) : 117.22 억달러
	■ 전일 외국인 채권매매 동향 : +4233 억원

※ 본 리포트는 한국무역보험공사가 외부기관으로부터 획득한 자료를 인용한 것으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하시기 바랍니다.